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훈훈한 이야기들과 희망적인 2020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시기다. 한데 최근 TV 뉴스나 여러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운동 대립·갈등·반복에 대한 이야기뿐인 것 같다. 우리나라 내부 문제뿐만 아니라 외국 관련 뉴스도 정치·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대립을 전한다.

나토나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립, 거기에 얼마 전 떠들썩했던 조국 사태와 여야의 정치 문제 등. 여기에서 뭔가 해결이 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양상이 언제 끝이 날 것이라는 예측의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미래의 상황은 명확하지가 않다.

불확실성은 불규칙적인 변화로 인해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

불확실성을 극복하자

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장애 일어날 수 있는 사상(事象)에 관해서 인간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하나의 구분일 터. 야구·축구 등의 스포츠에서 다음 작전을 정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결정 또는 기업에서 투자 및 신제품 개발 등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불확실성을 없애고 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정황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 우리 일상에서 불확실성은 쉽게 접할 수 있다. 광주공항은 이전하는 것인지 이전한 자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는 재개발과 재건축지역 외에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과 지역주택조합지역 등 엄청난 대가 물량이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러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시기가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 같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사심이나 이권이 개입하게 되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 우리는 경험으로 많이 보아 왔다.

필자도 최근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 지역의 최대 관심사였던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한 문제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뭐

냐고 물어보면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 부족과 토지나 주택의 매입 문제와 같이 지역민의 협조가 필요한데 ‘비협조적이다’는 답이 가장 많이 나온다. 3년여 한 지역에서 재생사업을 해왔기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역민의 협조를 받고 토지나 주택을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나 공유 부역을 만들기도 한다. 지역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토부나 광주시의 지역이나 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공모하고 또 선정되어서 지역에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진행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사업의 취지에 맞고 성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활동가와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 녹록한 문제는 아니다. 사업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 등 많은 부분에서 지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한

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지역민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역민의 편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마음의 문도 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전문 활동가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협의체와 의회를 포함한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이 도시 재생을 끌고 갈 힘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관심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큰 역할을 한다.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의 신속함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은 도시재생 예산 집행률이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예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위해 지역의 의원들은 사업 내용과 현장을 면밀히 살펴서 도움을 주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재생 사업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문제 해결 방법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다면 결국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불신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기고

경제 자유 구역, 광주의 성장을 위한 날개



박남연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요즘 광주시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경제 자유 구역의 약자인 ‘경자’다. 경제 자유 구역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특별 구역을 정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경자 구역으로 지정 되면 각종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규제 특례 적용,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기업에게 주어지고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광주는 자동차, 광산업 등 기존 산업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1인당 GRDP가 2017년 기준 전국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산업 기반 확충과 외부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이 광주 경제 자유 구역 지정이다. ‘경자’는 이용섭 시장의 1호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그동안 광주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의 포럼, 자문 회의 등을 거쳐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9월 말 5.54km에 해당하는 5개 지구(미래형 자동차산업 지구, 스마트 에너지산업 1·2지구, 지능형 공기산업 지구, AI 융복합 지구)를 경자 구역으로 산업부에 지정 신청했다. 경제 자유 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사를 거쳐 금년 12월에 예비 지정을 하고 내년에도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경자 구역 신청과 함께 지금 광주에는 때마침 산업 부분에서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세계 최초로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노사 상생을 지향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인공 지능 융합 집적 단지 사업을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산업 역점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광주 경제 자유 구역의 비전은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이다.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와 AI 기반 융복합산

업을 결합시켜 광주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감정이 있는 경제 자유 구역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인공 지능(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에너지-에어 가전-생체 의료 등 대표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연구 개발(R&D)와 제품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조직인(가칭)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설하여 산업별 투자 유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간 근무제 함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 활성화를 큰 전기가 될 것이다. 투자 유치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투자 유치 담당 부서 직원이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현재의 인사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 형태가 경제자유구역청이어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자유 구역이 현재 경부 산업 벨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서남권의 광주 경제 자유 구역의 추가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옛 성현께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국가나 기업, 도

시의 역사를 보면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다. 앞선 자가 밀리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추월하기도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보아 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환경을 누가 제대로 파악하고 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갈리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농경 시대의 경제 중심지였던 호남과 광주는 2차, 3차 산업 혁명에서 나중 된 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입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시대 요구와 흐름에 적응하는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와 AI 융복합, 스마트 에너지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광주가 앞선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민들이 뜻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새로운 리더 광주’가 꿈만은 아닐 것이다. 자신과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모든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 AI 융복합 등 광주의 혁신적인 내용물을 경제 자유 구역이라는 그릇에 담아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리드하는 광주의 비상을 시작하자.

기고

하이퍼루프 시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구혜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 과정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최초 제안한 하이퍼루프는 시속 1220km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하이퍼루프 원’(Hyperloop One)은 2016년 5월 11일 추진체 실외 시험 영상을 공개했고,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모의 주행까지 마쳤다. 뒤이어 HTTL라는 기업은 2019년 2월에 프랑스 툴루즈 지역에 하이퍼루프 시험 트랙을 완성했으며, 캐나다 트랜스팻도 캡슐 차량을 개발 중이고 유럽 4개국의 하이퍼루프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중국도 진공 튜브 트레인 실험선을 140m 구축하여 실험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하이퍼루프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적인 교통 수단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꿀 것이다. 직장과 거주지 선택의 범위가 확장되고 역 주변으로 신규 인프라가 구축되면 건설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와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하이퍼루프의 등장은 여가 시간의 증대로 이어져 엔터테인먼트, 여행 산업이 활성화되고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초고속 이동 수단의 기술로 미세 먼지, 탄소 배출 등 대기 오염을 완화·감소시켜 범지구적 차원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009년 ‘하이퍼튜브’(HTX) 핵심 기술 연구를 시작했고, 2016년부터는 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교통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울산과학기술원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협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진공 상태에서 열차를 음속에 가까운 1200km로 옮길 수 있는 핵심 기

술을 개발하고 2026년까지 시험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보유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협업 전략을 마련하여 ‘서울-부산 20분 주파!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한 하이퍼루프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KTX의 등장이 기존 교통수단의 축소·폐지·대체와 맞물려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그리고 여전히 KTX 정착을 위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다. 교통망과 도시 경관을 미리 변화되며 새로운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해관계자의 충돌과 기득권의 반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우리가 하이퍼루프가 가져올 갈등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교통 수단의 등장은 철도 및 항공 등 기존 산업의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극렬한 반대로 사회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서울-부산과 같은 대도시

에만 구축돼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삶의 격차가 커지고 초고속 이동 수단의 구축을 요구하는 핼비(PIMBY) 현상이 나타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기술의 발전에만 집중하여 자칫 그 기술로 인해 촉발되는 사회 분열과 갈등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초고속 이동 기술로 인해 야기될 중소 도시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몰락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미리부터 형성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초고속 이동 세상의 구현에 앞서 글로벌 주요 국가의 수용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다가 퇴출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Concord)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이퍼루프의 도입 및 확산의 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이러한 미래를 전방위적으로 전략적으로 미리 준비해 온 도래할 초고속 이동 시대에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기를 기원한다.

社說

노태우 장남 다시 사죄 전두환도 회개해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현 씨가 다시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죄의 말을 전했다. 지난 8월 투병 중인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오월 영령들에게 사죄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오월어머니집 등에 따르면 재현 씨는 옛그제 80년 5월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여성들의 섭터인 광주시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했다. 그는 5·18 당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곳을 찾았다고 했다. 방명록에는 “(5·18의) 아픔과 희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는 터전이 됐다”고 적었다.

재현 씨는 이어 정현애 이사장 등 오월어머니집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병석에 계신 아버님을 대신해 찾아왔다”며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신군부의 책임을 부정하고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

과 관련해 “개정판을 낼지 상의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이 같은 잇단 사죄 행보는 5·18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의 태도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과 대조된다. 하지만 진정한 사죄는 당사자의 죄에 대한 고백과 참회로부터 시작된다. 유족들이 재현 씨를 만난 자리에서 “사죄를 하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증언은 자료 제공이든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당시 보안사의 사진첩과 문건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발표 명령자 등 5·18의 핵심 의혹을 밝히는 것부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죄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극적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차체에 전두환의 회개와 사죄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스스로 만든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의원들

전남도의회가 스스로 만든 ‘의회 행동 강령 조례’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이 본인이나 친척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의정단에 신고하도 록 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의원 본인, 4촌 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 중인 법인 단체 등이 의안·예산·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안전과 관련한 직무 관련자인 경우 미리 의정단에 신고하고 안전검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이 같은 ‘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할 경우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이 같은 ‘이해 충돌 회피’를 규정한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 당장 도의회 한근석(민주·비례) 의원은 배우자가 전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예산안 심사에까지 참여했다. 한 의원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전남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애초(17억 7100만 원)보다 18억8900만 원 늘려 36억6000만 원으로 증액, 통과시키기도 했다. 오하근(민주·순천) 의원도 배우자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오 의원은 이번 어린이집 예산 증액을 요구한 장본인이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달 도의회가 개정 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이게 관련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조례를 위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남도당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관련 조례와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리고 당원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한다.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가려내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류시화 시인이 엮은 ‘인디언 연설문집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2017)에는 서구 문명의 허구와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꼬집는 내용이 나온다. 인디언들은 총과 병균 등을 가지고 들어온 백인들에게 비록 삶의 터전을 빼앗겼지만, 전통과 문화를 잃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시에를 추장을 비롯해 여러 부족들이 남긴 연설문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내가 보기에 당신들의 삶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들을 쫓듯이 부와 권력을 따라 뛰

11월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 부른다. 12월은 부족마다 각기 ‘침묵하는 달’ ‘무소유의 달’ ‘존경하는 달’ 등으로 명명하는데, 여기에는 자연에 순응 하면서도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담겨 있다.

연젠를 다사다난하지 않았으랴만 2019년 또한 어느 해 못지않았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정치권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대립과 갈등, 질서와 반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2월을 ‘침묵하는 달’ ‘무소유의 달’로 규정

했다면 인디언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말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자.

“당신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잊어버린 이상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늘 생각에 이끌려 다니고, 남은 시간은 더 많은 재미를 찾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자기를 돌아보는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찌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는가. 어찌 어머니인 대자연의 품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 수 있는가.”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敬</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채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